

### 순천시, 퇴원 후 집에서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 높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과보고회 가져

7개 영역서 긍정적인 변화...서비스 만족도 높아

순천시는 지난해에 추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최근 성과보고회를 갖고 전남복지재단(연구책임자 김남희)에서 노인과 보호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

이용, 삶의 질, 사회적 안정감, 보호자의 부담부담감 등 7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이후 93.3%가 일상생활이 개선되었으며, 보호자의 부담부담감이 줄었다고 답했고, 만족도가 가장 높

은 서비스는 30.7%로 건강식사지원이며, 14개 서비스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88.7점으로 나타났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소득에 관계없이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양이나 제공시간이 미흡하다’ 40%, ‘필요시 도움

줄 사람이 없다’ 48.4%, ‘현재 건강상태가 나쁘다’ 77.1%로 답해 서비스의 양적인 만족도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순천시는 전남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작년 한해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 791명에 대해 퇴원 후 집에서 받는 주거, 요양돌봄, 보건 의료 서비스를 1인당 평균 4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 보성군,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운영 재개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직접 지원 서비스 제공

보성군은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대체 운영해왔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는 만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제공되며,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12개 읍·면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눠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서비스를 축소하고 비대면 간접 서비스로 대체 운영해왔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돌봄이 꼭 필요한 대상자

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 돌봄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직접 가구를 방문해 어르신 안부와 생활을 챙길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도 증가 및 인근 지자체 코로나19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수행기관별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병예방수칙 교육, 마스크·손소독제 준비, 1일 1회 발열체크 진행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보성=김영순 기자

### 청암대 장애학생지원센터-(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MOU

인권존중과 권익증진 위해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와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대학생의 인권존중과 권익증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학금 전달식 및 협약식은 최근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과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인권존중과 권익증진 및 희망의 동반자 사회 진로 지원에 기여하고자 ▲ 상호협력력을 통한 인적자원 교류 및 교육 활성화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순천시지회 추천자에 대한 장학제도 운영 ▲지체장애 대학생 취업 및 진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사업 추진 ▲기타 상호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되는 사항 등에 적극 협력 하게 된다.

정영도 (사)전라남도지체장애인

협회 순천시회장은 “제1회 장애대학생 장학금 수여식 일환으로 협약 체결하고, 양기관이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의 인권존중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동수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장애대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 준비를 앞두고 MOU를 맺게 돼 대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대학교 장애학생지원



센터는 2020학년도 상반기에 장애대학생 학습지원실을 개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대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 기자

### 곡성군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 연중 실시

곡성군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에서는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이면 매년 1회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1월말 중으로 대상자 전 세대에 기억력 검진문을 우편 발송해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치매검진은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인지선별검사(K-CIST)를 실시해 인지 저하로 의심되면 2단

계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진단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유무에 대해 평가한다. 3단계는 개별검사로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에 의뢰해 혈액검사와 뇌 CT 등 실시한다. 1, 2단계 검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3단계는 소득기준에 따라 검사비를 차등 지원한다.

곡성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36%(2020. 12월말 기준)를 넘는 대표적인 고령지역이다. 치매 관

리가 군민의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속도도 늦출 수 있다. 곡성군이 치매 조기검진에 힘을 쏟는 까닭도 정기적으로 치매 검진을 실시해 조기 발견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



한 만큼 만 60세 이상 주민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치매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곡성군치매안심센터(061-360-8994, 8992)로 문의할 수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어 주세요!

